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창업지원 1284억원 투입

전북 창업정책 한마당... 도내 혁신기관 '한자리'에
창업생태계 미래비전 제시... 1조 투자펀드 등 추진

전북도 내 30개 혁신창업기관에서는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등 103개 사업에 1284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성장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안태웅 전북중기청장과 혁신창업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창업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로 신규 업무협약 체결한 한국국도정보공사와 4개 기관과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30개 창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 정책을 한 자리에 모아 종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업 지원기관과 전문멘토의 현장상담을 통해 사업호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안내를 해주는 등 창업·벤처기업 수요자 및 참여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전북도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5대 추진전략인 △거버넌스 활성화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터 기반화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지역연대 규모화를 제시하면서 펀드 1조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스타트업 100개사 집중관리 등 20대 핵심과제를 통해 예비유니콘 10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는 △사업화 지원, △기술산업 분야별 지원, △자금 지원 총 3부로 나눠 각 사업들의 핵심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즉석 질의 응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의 공공

증을 해소하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성장주거별, 지원유형별, 지원기관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편람' 책자도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라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https://www.jti.or.kr/) 플랫폼에서 전자책자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탄탄한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고 창업육성이 그 중요한 축이며 지역의 혁신기관 모두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계속되는 대기 건조 화재 예방 주의해야"

전주시상지침

최근 지속되는 대기 건조에 의한 화재위험 수위가 높아졌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실효습도 40~50%)가 매우 건조하고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실효습도란 목재의 건조를 나타내며, 50% 이하가 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주시상지침은 매우 건조한 대기와 강한바람이 일고 있는 무주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은 불씨는 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입산 자제,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불씨관리 주의,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태 기자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도, 교육부 RIS 최종 선정

5년간 국비 1500억원 등 총 2145억 투입
미래수송기기 등 3대 핵심분야 인재 육성

전북도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 등 총 2145억원이 전북지역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역 핵심사업과 연관된 도내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및 공유대학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도내 대학들은 RIS 사업을 활용해 '공통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 가칭 새만금텍(Saemangeum Tech, ST)이라는 공유대학(원)을 통해 학부 교육·대학원 교육혁신,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실무인재를 육성한다. 더불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 특성을 반영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등 대학 교육을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지역 RIS 3대 핵심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미래수송기기 분야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수송기기 부품 기술 고도화, 전·후방 기업수요 연구개발

(R&D) 기반 미래수송기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요소 기술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선도 기술 확보, 산학연 협업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유통 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및 안전관리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농생명 기반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및 푸드테크 스마트 기술을 확보하고 농생명바이오 8차 산업 및 헬스케어(헬링)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교육부 기본 방향에 맞춰 올해 상반기 내로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인 전북테크노파크에 RIS 총괄운영센터를 구축하고, 교육부-대학과의 협업(Co-Design)을 통해 사업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올해 RIS 신규지역 국비를 2개소에서 3개소로 증액하는 등 도와 대학,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 공모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새만금잼버리 대비 정부 합동 사전 안전점검 진행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등 안전대책 수립 적절성 살펴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고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5만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야영 축제다. 야외 숙박 생활을 하면서 문화교류, K-POP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영내 과정 활동, 전북 14개 시군의 자연·전통·

문화 대표시설을 체험하는 영의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대규모 인원에 따른 인파 사고, 치안, 교통 화재, 구조, 구급 등 분야별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민간전문가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 적절성, 잼버리 관계시설 설치 및 시설물 설치계획 적절성 등을 살피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 적절성, 잼버리 관계시설 설치 및 시설물 설치계획 적절성 등을 살피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지적사항은 조직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대회 개최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분야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합력 과제 및 도합력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잼버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한류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세이브공제, 답례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부하고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남원시를 응원해주세요
남원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쉽고, 편리하게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 e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www.ilovegohyang.go.kr

문화의 남원
미래안길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